

북한건축 답사기

A Survey on North Korean Architecture

김봉건 /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
by Kim Bong-Geon

방북기회가 오다

한반도의 중간을 가로지른 38선이 이 땅에 분단의 비극을 잉태한지 어느 덧 5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같은 민족, 동일한 언어를 지닌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단절되어 남북한은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 곳과 같이 인식되었다. 그러나 봄이 오면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그 싹을 틔우듯 아무리 인위적으로도 막으려 해도 이 땅에 도래한 통일의 기운은 어찌할 수 없는 지 최근 수년간 남북교류의 기운이 조심스럽게 꽃피기 시작하고 있다.

남북교류는 경제,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부간의 직접적인 창구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그 특색이다. 그 동안 다른 분야의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 교류는 거의 진전이 없어 분단이전의 상황 외에 최근의 변화에 대한 것은 거의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다. 다만 홍보용 잡지인 '조선화보' 등과 제삼국에서의 귀동냥을 통한 극히 제한된 소식만이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금강산을 위시한 북한의 문화유산을 직접 촬영한 생생한 자료를

소개하기 시작하여 그 동안 북한지역내의 건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한 바 있다.

필자는 98년 경향신문사의 '남북통합문화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단의 일환으로 두번에 걸쳐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행운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업은 남북한의 문화유산 35,000여건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띄우는 사업으로 국경없는 전산망을 통하여 남북한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해외동포들에게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목표로 시작하였다.

북한 방문은 정보화사업의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으나 그 과정 중에 북한 건축을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회는 미리 세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북한측의 필요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비록 피상적이긴 하지만 북한건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방문지는 평양, 묘향산, 사리원시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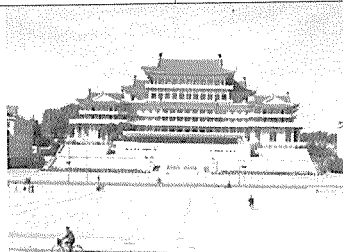
대동강 주변의 경관

평양은 옛부터 관서지방의 중심지로 고조선의 왕검성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고려 시대의 수도가 있던 유서깊은 곳이었다. 평양에 도착하기 이전 과거 번창했던 고도(古都)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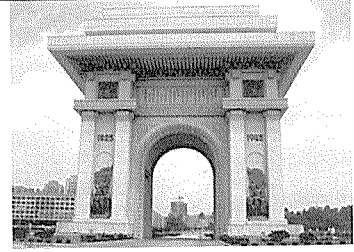
평양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이라는 큰 강이 도시중간을 흐르고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곳이다. 주민들은 편의상 평양을 크게 동평양과 서평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평양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곳으로 방형구획의 시가지가 구성되어 있으며, 서평양은 원래 평양이 있던 곳이다. 최근에는 보통강 서편에 대규모 도시건설이 진행되어 청춘거리, 광복거리 등이 개발되었다. 동, 서평양



대동강변 주변의 녹지



인민대학습당



평양개선문

은 대동교, 옥류교 등의 여러 다리가 연결하고 있으며 능라도, 양각도, 두루섬 등이 대동강 중간 중간에 놓여 있다.

서울 한강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고층아파트가 도시경관을 둘러싸고 있으며, 최근에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조성한 체육공원이나 소규모 녹지만이 자리하고 있을 뿐이다. 평양은 모란봉에서 대동문 등에 이르는 곳의 과거 평양성 일대와 대동강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강변 녹지는 좌우가 아파트로 막힌 한강변보다는 그래도 자연의 냄새가 물씬 나는 곳이었다.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시각적 포인트인 능라도에 5.1경기장으로 불리는 시설물이 자리하여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북한이 1980년대에 건립한 것으로 평양에서 본 다른 어느 건축물보다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생각되었다.

조선식건축물

평양거리에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도 외관을 우리 전통건축을 응용하여 지은 조선식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대동강변의 평양냉면 식당인 옥류관, 김일성광장 앞의 인민대학습당, 중구역의 인민문화공전 등이 그 대표적인 건물들이다. 이들은 광주박물관 건물과 같이 지붕, 난간 등을 전통건축의 형태를 차용하면서도 재료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은 건물들이다. 한국에서도 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성이란 논란이 7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면서 많은 시도가 있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1960년대 옥류관, 평양대극장 건설을 계기로 주체성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건축적 테마로 등장하면서 공공건축에 있어 조선식건축이 주류를 이루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광장 앞에 위치한 인민대학습당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다. 우선 4만여 평으로 기억되는 거대한 건물규모에 압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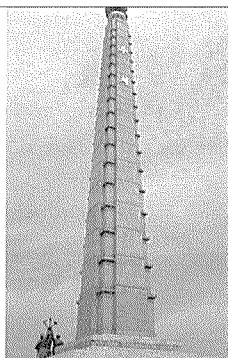
었으며, 복잡한 기능을 하나의 건물에 담으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다양한 형태의 전통지붕을 덮고 내부는 현대식으로 짓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 김일성 광장에서 혹은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은 커다란 궤체 위에 여러 개의 지붕이 중첩되면서 전통건축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건축임을 느낄 수 있었다.

각종 선전조형물

북한은 사회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 사회주의 체제 선전을 위한 조형물들이 평양시 곳곳에 설치되어 이들이 도시경관의 강력한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대동강 서편의 개선문과 동편의 주체사상탑이다.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유사한 모습으로 과시적인 욕구가 엿보이는 조형물이다. 입면은 파리의 개선문과 유사하게 처리하였으나, 지붕 부위는 유럽의 석조건축물과 달리 전통건축의 모티브를 응용하여 여러 개의 층단을 두고 서까래 등을 살려 처리한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완성도에서는 파리의 것에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다.

주체사상탑은 대동강변에 건립한 것으로 높은 탑상의 조형물이다. 서울의 남산타워와 유사하게 하부의 100미터 이상의 높은 구조물 위에 전망대 기능의 건물을 올려놓은 모습이다. 상부 전망대는 혁명을 상징하는 햇불의 모습으로 아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을 하였는데, 마치 붉은색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 건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건설 당시 무거운 하중의 전망대를 100미터가 넘는 높은 곳에 안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고안하여 외국의 저명한 기술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주체사상탑



광복거리 초고층아파트



평양시내의 아파트

북한의 주택

평양시내의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92년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개인주택을 브루조 외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내에는 주로 2가지 유형의 공동주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하나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6층 높이 정도의 아파트이다. 현재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벽체식 구조가 아닌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낡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서울의 수많은 아파트와 차이는 가니는 것은 거의 흰색 등 몇 개의 지정된 색조로 마감한 외관으로 다양성이 결여된 획일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또 하나는 1980년대 들어서 대규모 도시미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층아파트이다. 특히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는 도로 폭을 100미터로 확장하고 길 양쪽에 서구화된 고층아파트를 많이 건립하였다. 아파트는 서울에서와 같은 일률적인 일자형보다는 일자형, 탑형, Y자형 등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고층아파트들은 시내의 저층아파트 보다 발전된 공법을 적용하여 건립하였으나 색조는 역시 흰색의 단일톤으로 통일하였다. 100미터 폭의 거리 양쪽에 늘어난 흰색의 고층아파트는 평양이 국제수준의 문화도시임을 자랑하고 있으나 활기없는 거리 풍경은 국제화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다.

평양을 벗어난 농촌의 주택은 2~3층의 저층 공동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모습도 가끔 눈에 띄었다. 그러나 공동주택들은 콘크리트블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며 많은 건물들이 외장마감 없이 콘크리트색이 그대로 노출된 집들이 대부분이었다. 사리원시로 가는 도중에 한국의 산간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점판암으로 지붕을 덮은 청석집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재료의 조달에 따른 지방적 특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각종 문화시설

1980년대 평양시까지 미화사업을 하면서 보통강 남편에서 강변으로 연결되는 거리를 개설하고 그 이름을 청춘거리로 명명하였다. 청춘거리라고 하여 서울 명동, 종로와 같은 젊은이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들이 밀집하게 들어찬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자본주의적 활기는 퇴폐적이고 권장할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이곳에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체육시설들만이 청춘거리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것인 모양이었다.

서울의 잠실, 올림픽 공원과 같이 각종 체육시설들이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으나 수영경기장, 배트민턴경기장, 농구경기장, 탁구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축구장, 태권도 경기장 등의 건물이 도로 양편으로 열병하듯이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서울의 스포츠 콤플렉스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특유의 규율과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들 건물들은 대규모 체육시설답게 상징적인 형태로 건축하였으나 개개 건물의 디자인의 완성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았다.

김일성 광장 양편에는 조선역사박물관(사진10)과 조선미술박물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건물 입면은 전면에 석조기둥을 열지어 놓고 벽체를 개방하여 근대건축물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였다. 석조기둥의 상부는 서양건축물의 오더(order)로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입면 처리방식은 평양해방호텔 입면에서도 사용된 방식으로 석조 건축에 기둥-보식의 구조표현법을 보여준 북한의 현대건축의 실례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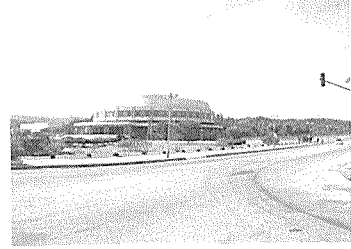
북한의 호텔



북한의 농촌주택 전경



황해도 사리원시 청석집



평양 청춘거리 체육관

북한에서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그나마 최신의 현대식건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방북기간 중 평양에서 대표적인 외국인 투숙호텔인 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등에 투숙하거나 방문하여 이들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고려호텔은 하부는 하나의 건물이나 상층부는 높은 타워형 건물 두 개를 세우고 최상층부는 서로 연결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외장재는 짙은 고동색 타일이며 내부는 회의실, 수영장 등을 갖춘 호텔이다. 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아 평양시내 어느 곳에서도 눈에 잘 띄이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양각도국제호텔은 고려호텔과 달리 외관을 전면 글라스로 마감한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현대식호텔로 주변의 대동강에 비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 호텔들에서 공통적인 것의 하나는 최상층에 모두 회전식당을 설치한 점이다. 회전식당은 서울의 남산타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식사를 하는 도중 식당 자체가 회전하여 시내 경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회전식당은 외국인들의 필수관광코스라 되어 있음을 8.15축전에 참가한 한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학생들의 호위를 받으며 나타났을 때 알 수 있었다. 저녁에 회전식당에 초대 받았을 때 평양의 멋진 야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철학과 같은 어둠만이 깔려 있어 실망을 하였다.

교육시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산실인 종합대학으로 중심건물인 본관은 1948년에 완공되었다. 건물 평면은 좌우 대칭으로 만들었으며, 중앙부위는 앞으로 약간 돌출하고 입면을 좌우보다 높여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외관은 조적식의 벽체에 지붕은 기와를 올려 근대 건축물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잘 정리

된 건축물로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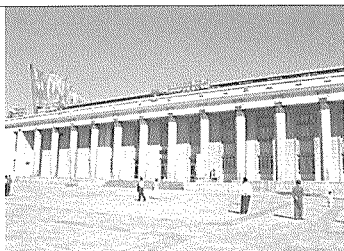
김책대학은 공업계통을 중시하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사각형 입면에 일정한 크기의 창호를 규칙적으로 낸 건물로 매우 단조로운 건물이다. 이러한 방식은 콘크리트 건물의 특성을 살려 단순하게 처리하는 수법으로 평양시내에서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현대건축의 디자인 해석방식이었다.

기타 건축물

북한주민들이 '지하공전'이라 부르는 지하철은 깊이 100미터 속에 있는 시설로 1961년 인민경제7개년계획 기간 중에 시작하여 1973년 9월 1단계인 천리마선이 개통되었다. 역은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하여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연결하여 오르내리고 있었다. 서울과 같이 지하철의 교통분담률이 높지 않은 듯 이용승객은 많지 않은 편이었다.

지하역사는 모두 대리석 돔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자이크, 상들리에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객차는 오래되어 지하공전이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지상의 지하철역사는 유리 와 철 등으로 만들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이 아닌 콘크리트를 이용한 근대건축물로 거리의 다른 건축물과는 눈에 잘 보이는 모습의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이채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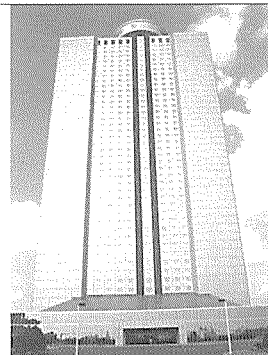
북한의 개인의 사사로운 경제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서울과 같이 상업활동이 활발치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상업용도로 별도로 건립한 건축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았고 공공용의 상업시설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도 다른 용도 건축물의 1층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서울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필자가 투숙했던 고려호텔 건너편에는 여러 음식점들이 거리를 따라 공동주택의 저층부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으나, 서울의 상업용



김일성광장에 접해 있는 조선역사박물관



멀리서 바라본 고려호텔



양각도 국제호텔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화려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고, 단지 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치되어 상업시설이 주는 활력감은 부족하였다.

전통건축물

모란봉의 평양성 일대에는 을밀대, 최승대, 현무문, 청류정 등의 전통문화유산이 공원녹지 속에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공원은 평양시민들에게 귀중한 휴게공간으로 평양시민들이 친지들과 어울려 장구를 치고 놀면서 송편 등의 제사음식을 스스럼없이 남쪽사람들에게 건네는 우리 특유의 인심을 맛보기도 한곳으로 기억에 남는 곳이다. 최근 북한에서는 평양성의 성벽하부에서 단군시기의 유적을 발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평양 교외의 고구려 동명왕릉을 건축하면서 최근 북한의 문화유적복원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래 동명왕릉에는 수호사찰로 정릉사가 있었으며, 그 존재는 발굴을 통하여 이미 확인된 바 있었다. 이번 방문 중에 그 중심곽을 복원한 일곽의 건축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체사상의 중심에서 있는 고구려와 관련된 북한의 건축물 복원개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 남아 있는 것을 연구하여 복원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단청 문양을 그대로 부위별로 모방하였으며, 단청색조와 지붕기와 색깔까지 현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동색으로 구워 낸 것에는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오랜 기간을 거쳐 변색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색조를 그대로 사용한 점에서 혹 고구려 건축은 조선시대의 건축과 무조건 달라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앞선 것이 아닌지 의문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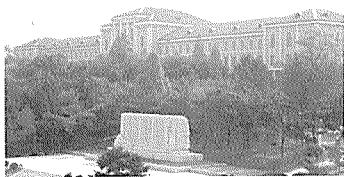
평양거리의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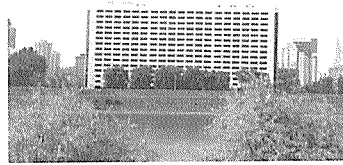
정릉사 복원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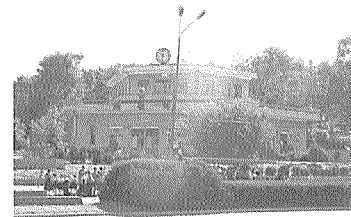
고구려단청 복원



김일성대학 본관



김책공업대학교



지하철역사